



불교총지종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 총지신문

총기 52년  
2023년 6월 1일

월간 발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우인(최명현)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7년 제 283 호

불기 2567년 종령 봉축 법어

## 일체중생 모두 귀중한 존재



종령 법공 대종사

오늘은 총기 52년(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나라가 안정되고 온 세계에 평화의 물결이 이어지길 서원하며, 모든 사부대중에게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자비와 지혜의 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여 행복과 희망, 산업과 복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온 세계는 경제적 어려움과 국가 간의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시기가 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의 동체대비 정신으로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길 때 이 사회는 더욱 화목하고 살기 좋은 불국정토로 거듭 날 것입니다.

수행본기경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담안지(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

천상에서나 땅에서나 나 홀로 존귀하다. 온 세상이 모두 고통에 잠겨 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나(我)란 존재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코살라국의 파세나니 왕과 말라카 왕비에게 "동서남북 사방에 마음을 다 기울여 돌아다니다 해도 자기 자신보다 소중한 사람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가장 소중하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주의 근본이며 출발점입니다. 내가 태어남으로 이 세상이 존재하고 또한 내가 죽는 날이 우주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소중한 만큼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존재이니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해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대자대비와 지혜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일체중생을 고통에서 구원하는 자비의 등불을 함께 밝혀나갑시다.

## 세상에 오신 뜻으로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며 국가무형문화재인 연등회가 지난달 20일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열렸다. 불교총지종은 주불인 비로자나부처님을 높이 4m의 봉축 장엄등으로 재현하고 본존 육자진인 '옴마니반메훴' 그리고 종단 상징물 육합상을 형상화하여 서울 도심에 환하게 밝혔다. 기사/화보 6,7면

불기 2567년 통리원장 봉축사

## 모두가 평등한 평화세상을 서원합니다



통리원장 우인 정사

오늘은 부처님께서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을 체득하시고, 대비심을 일으켜 일체중생이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무명의 그늘

을 환하게 밝혀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을 봉축하며, 대일여래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서 모두 평안하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비상상태 해제를 공식발표하면서 우리나라도 일상적 관리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던 질곡의 터널에서도 우리 불자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동체대비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

한 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존재가 공통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연기법(緣起法)입니다. 연기를 보면 곧 법(法)을 보고, 법을 보면 곧 여래를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불이(不二)의 관계에 있으며, 모든 존재는 결국 한 몸, 즉 동체라고 설하신 것입니다. 일체중생이 모두 다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인간으로 오신 부처님 시현의 참뜻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3년 여간 불안한 일상을 버텨온 것도 부처님의 진리 속에서 서

로가 하나였기에 가능했음을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무연대자, 동체대비'의 법문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분별없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생명을 존중하며, 자연과 공존하는 소육지족의 삶을 실천할 때 오락의 번뇌가 없는 청정한 밀엄정토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올해의 봉축 표어는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입니다. 부처님께서 펼쳐놓으신 가르침에 의지하여 마음속의 차별을 걷어내고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평화의 세상이 열리기를 대일여래의 가지력을 빌려 서원합니다.

종/조/법/어

생활하며 닦아가고 닦아가며 생활하자. 활동하며 깨쳐가고 깨쳐가며 활동하자. 생활하며 불법퍼고 불법퍼며 생활하자. 생활이 곧 불법이요, 불법이 곧 생활이다.

지면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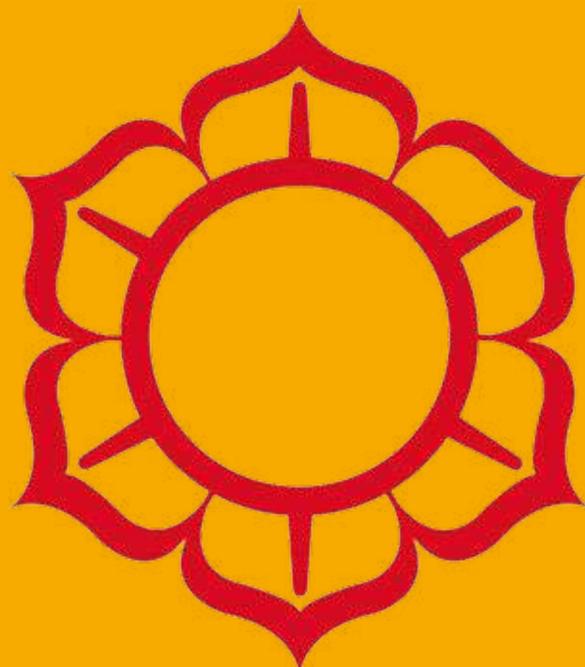
2면 교계 봉축 법어  
5면 종단 봉축사  
6,7면 연등회 특집 화보

## 총기 52년 49일 하반기 불공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날짜 \_ 총기 52년 5월 28일(일)~7월 15일(토)

장소 \_ 불교총지종 전국사원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



### 자비의 헌신 없이 이 세상 고통 줄지 않아

무생(無生)의 삶을 이룩하고 해탈(解脫)의 위신력(威神力)을 갖춘 분이 오늘 진리(眞理)의 현신(現身)으로 우리곁에 오셔서 범부(凡夫)를 고쳐 성인(聖人)을 이루는 우레 같은 할(喝)을 하니 비로(毘盧)의 바다가 뒤집히고 생각마다 미륵(彌勒)이 하생(下生) 합니다.

곳곳에서 진리(眞理)의 현관(玄關)이 열려 중생(衆生)을 깨우치는 사자후(獅子吼)가 쏟아지고 자문(慈門)이 열려 중생(衆生)을 요익(饒益)케 하는 무위사(無畏施)가 넘칩니다.

새들은 환희(歡喜)에 젖어 생멸(生滅) 없는 무생가(無生歌)를 노래하고 석녀(石女)는 줄 없는 거문고로 틀 밖의 소식을 전하니 두두물물(頭頭物物)은 불조대기(佛祖大機)를 풀어내고 범성(凡聖)은 본래면목

(本來面目)을 통해 차별 없는 일미(一味)를 이룹니다.

삼라만상(森羅萬象)은 일기일경(一機一境)을 통(通)해 진리(眞理)의 모습을 드러내고 여러분 앞에 시종(始終) 없는 빛을 놓고 있습니다.

자성(自性)을 통(通)해 무생(無生)의 면목(面目)을 깨달은 분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탈(解脫)과 안락(安樂)을 얻을 것이요 탐욕(貪慾) 속에 자리하고 있는 이타적(利他的) 덕성(德性)을 깨달은 분은 함께 아파하고 치유하는 보살(菩薩)의 대기대용(大機大用)을 얻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열어서 중생(衆生)이 지닌 어둠을 걷어내고 본래면목(本來面目)을 깨닫게 하는 지혜(智慧)의 눈발(눈)을 일구어 중생(衆生)이 쏟아낸 노여움과 아픔을 받아

(般若)의 품으로 안아서 따뜻한 자비(慈悲)로 바꾸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 고통은 사랑과 자비(慈悲)의 헌신(獻身) 없이는 줄어들지 않고 중생(衆生)의 고통을 제 몸에 담은 비원(悲願) 없이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대비(大悲)의 한 생각이 세상(世上)을 변화(變化) 시키고 인생(人生)을 바꾸게 합니다. 날마다 미워하고 다투며 얼굴을 붉히는 이웃이 부처 될 사람이며 불조대기(佛祖大機)를 갖춘 진리(眞理)의 구현체(具現體)입니다.

오늘 우리가 밝힌 자비의 등불은 좌절의 상처를 입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오만해진 사람들에게는 회심(回心)의 눈을 뜨고 자기를 낮추게 하는 하심(下心)의 등불입니다.

대한불교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 일심 청정으로 부처님 세상 이루자

모든 생명을 제도하시고자 일대사 인연으로 나투신 자비의 부처님.

고귀한 만남의 인연을 베푼 감격으로 두 손 모아 맞으며 큰 뜻을 따르리라.

중생을 위해 신명을 다 바치는 거룩한 원력을 찬탄하며 광대무변한 법신의 자리를 향하리라.

생멸이 없는 마음의 본성을 보면 곧 진실한 부처님을 볼 것이니 파도와 바다가 둘이 아니듯 중생의 고향은 부처님 도량이구나.

중생심을 일으키는 무명 번뇌 제도하면 깨달음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으리니, 평화로운 마음에서 인류의 행복 얻어지고 일심 청정으로 부처님 세상을 이룩하여라.

대한불교진각종 종인 경정 정사



### 세상살이 참 이치 헤아려봅니다

하늘땅의 움직임이 제 길을 가듯이 부처님은 오고 감이 늘 자재하여 오늘도 여전히 우리 곁에 오십니다.

선남선녀 찬탄하여 꽃 뿌려 맞이하고 오시는 뜻 헤아리고 받들어 갑시다.

법계는 그 자체가 일여성(一如性)이어서 길은 나뉘면 여럿이고 안은 모여 하나라.

삼라만상 각각각색 제 빛깔을 자랑해도 모두 다 하나 법성의 장엄한 활동상이니 그 이치 깨치면 안락정도 여기입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 이것저것 분별하여 내 것 남 것 주고받고 뺏고 뺏기지만 다툼은 다시 화해로 다름은 또 조화로 생명법칙 깊은 속성 마음에 담아내면 나라거나 사람마다 손잡고 살아갑니다.

군중의 아픈 외침 감남을녀 신음소리 남 탓 내 변명하며 메아리로 돌리고 거짓 숨겨 진실인양 내 책임 떠넘겨도 지은만큼 받는 진리 거스를 수 없으니 속마음 서로 새기며 평등사회 가꿉시다.

윗자리 아랫자리 때에 따라 바뀌거늘 내 자리 나의 몫을 제대로 보살펴서 참회를 먼저 하여 내 형편 떼지지 말고 더불어 사는 동네 곳곳 포근히 감싸 안고 세간의 생활 중에서 참 깨달음을 누립니다.

참 마음 심인 밝혀 오신 뜻을 기립니다.

대한불교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



### 인욕의 갑옷 입고 세상에 전법

고덕(古德)께서는 멀고도 오랜 구원겁전(久遠劫前)에 제법실상(諸法實相)의 묘법(妙法)을 보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중생의 삶과 하나 되어 깨달음의 성취로 돌아왔노라.”

세상은 ‘법화경’ 비유 말씀처럼 여전히 번뇌의 불길은 멈추질 않습

니다. 온 세상은 편안한 곳이 없어 마치 불타는 집과 같아 고통이 가득하여 너무도 무섭고 떨리며, 생노병사와 우환이 항상 있으니 이런 번뇌의 불길이 타올라 그칠 줄 모르는구나.

우리 모두 부처님의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산승(山僧)은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2567년 부처님오신날 합장하고 발원합니다. 많은 사람의 삶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인욕의 갑옷을 걸치고 이렇게 중생들 곁으로 진리의 법을 전하러 떠납니다.

편안하지 못한 이들을 편안하게 합시다.

# 봉 축

## 부처님오신날

<p><b>관성사</b></p> <p>주교   우인</p> <p>02-736-0950</p>	<p><b>밀인사</b></p> <p>주교   덕광</p> <p>02-762-1412</p>	<p><b>법천사</b></p> <p>주교   화령</p> <p>031-751-8685</p>	<p><b>벽룡사</b></p> <p>주교   승원</p> <p>02-889-0211</p>
<p><b>시범사</b></p> <p>주교   혜광</p> <p>032-522-7484</p>	<p><b>실지사</b></p> <p>주교   서강</p> <p>02-983-1492</p>	<p><b>지인사</b></p> <p>주교   범우</p> <p>032-528-2742</p>	<p><b>총지사</b></p> <p>주교   록경</p> <p>02-552-1080</p>

서울·경인 교구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오늘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 부처님께서 오신날입니다.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서로를 어루만져 주고 꽃과 싱그러운 초록이 어우러지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더 특별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에서 완전히 벗어나 두려움 없이 이웃과 함께 활짝 웃으며 서로를 마주보는 온전한 부처님오신날을 3년 만에

맞이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한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감염되지 않을까 상대방을 배려했던 따뜻한 마음, 최악의 상황에서도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지 않은 희생정신,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먼저 보살피는 자비심이 우리 모두를 구했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위해 방역 지침을 지키며 함께 했던 모든 국민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공동체와 이웃을 위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며, 아끼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스승께서는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며 세상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 공동체와 이웃 위하는 마음이 부처님마음

부처님께서 온전한 가르침을 전해주셨지만 오늘의 현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세계를 뒤흔드는 전쟁의 공포가 여전하고 소중한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분단의 고통 속에 긴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신적 고통이 깊어지고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은 모두 인연과 인과에서 비롯됩니다. 욕심은 마음의 전쟁을 불러오고 내러움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다. 내 안의 존엄함을 깨닫고 청정하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때 진정한 행복의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스스로가 주인공이며 부처로 살아가는 길이 될 것이며 온 국민의 마음이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두 손 모아 간절히 발원합니다. 모든 차별과 혐오, 갈등과 폭력, 빈곤과 질병이 사라지기를 발원합니다. 자유와 평화, 조화와 질서, 지혜와 자비의 정도 세상이 속히 성취되기를 발원합니다.

모든 국민과 불자들이 업장을 소멸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대한불교진각종 총무원장 도진 정사

### 자주정신으로 발돋움 합시다

혁신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자주정신으로 새롭게 발돋움해야 합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며 봉행하는 우리들의 불자불행(佛作佛行) 인연공덕(因緣功德)으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은 열반락(涅槃樂)을 얻어 영원한 안락을 누리며, 고통 속에서 헤매는 이들은 하루 빨리 고통을 여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서로 도움시다. 모두가 평상심을 회복해서 마음으로부터 정도를 되찾아 부처님 품안에서 안락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원합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입니다. 자비의 등불로 세상을 밝힙시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지혜와 자비의 화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지혜를 밝히고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이 세상을 풍요롭고 아름다운 불국정도로 가꿀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잃어버렸던 일상을 회복하는 일이 절실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로 불안했던 날을 보냈습니다. 치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우리 사는 이곳을 부처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참회하고 화합하며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으며 부처님의 가없는 자비와 지혜광명으로 국가와 인류에 평화가 깃들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가 나날이 행복하기를 서원합니다.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오신날입니다. 온 마음 다하여 부처님 오신 뜻을 기리고, 온 정성 다하여 봉축의 기쁨을 이웃에 전합니다.

아름다운 톨미니 동산으로 오신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사자후로 만 생명의 존엄을 설하셨으니, 우리가 만법의 주인이요 우리 사는 이곳이 극락입니다. 오늘 봉축의 마음 모아 오색의 연등 밝히니, 무명 번뇌는 사라지고 정법의 시대가 환하게 밝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질병의 고통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 우리가 만법의 주인이고 이곳이 극락

마음이 밝으면 세상이 밝고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두워지는 이치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깨우침의 힘은 탐욕의 불을 끄는 지혜를 싹틔우고 악행의 과보를 녹여 줄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의 한결같은 목표는 성불입니다. 성불을 향한 길은 오직 마음 닦는 길입니다. 중생의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니, 굳건한 신심과 드높은 서원을 잃지 말고 열심히

정진합시다. 정진이 무르익어 자등명이 성취되고 일심이 청정하여 범등명이 이루어집니다. 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닦아가면 오늘도 내일도 부처님오신날입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의 환희와 축복으로 모든 이의 소원이 성취되고, 사람마다 나라마다 부처님 가피가 드리워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범명 스님

### 진여의 올바른 삶 개척하길

밝히는 일로 부처님 오심을 봉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스스로 자각을 통해 진여의 올바른 삶을 개척하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어려운 이웃에도 눈을 돌려야 합니다. 자비 실천으로 봉축하고, 이 나라의 분단된 아픔을 통일로 치유할 수 있는 헌신적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또 불교가 이 시대의 종교로서 구원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하는 데도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대지에 신록이 가득한 이때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탄신은 범화경 방편품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셨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智見)을 얻어서 청정함을 얻기 위해 출현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명 속에 헤매는 중생들에게 올바른 통찰을 열어 보이고, 생사의 속박과 삶의 불안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구체적 원력을 갖고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불자들은 등이나

부처님오신 날의 의미를 깨닫고 인간의 고통이 있는 곳에 구원의 불빛이 밝혀져 합니다. 부처님의 탄신을 통해 일체중생 모두가 법신으로 탄생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오늘은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입니다. 인류의 스승이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룩하고 경사스런 날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두두물물(頭頭物物)이 진리의 실상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들은 아상(我相)에 사로잡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무명의 세계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히 구족한 지혜를 몸소 깨달아 일깨워주시고, 동체대비의 크신 자비로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탐진치 삼독심에 물든

### 공존·소통의 지혜로운 삶 살길

중생들에게 무욕(無慾)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를 실천하는 중생들에겐 이념과 사상, 계급과 계층, 지위와 위상이 다를 수 없습니다. 차별과 차등이 없는 평등한 세상에서 공존과 소통의 지혜로운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뜻을 헤아려 마음 속 환한 등불을 찾는 것이야말로 참된 불자의 도리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사회 공동체의 평화와 평등을 위한 뜻깊은 법석을 널리 나눠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미완(未完)의 부처입니다. 자신의 마음속 불성(佛性)을 바로 볼 때 이 사회의 어둠을 물리치고 환희장의 세상을 열 수 있습니다. 불성이 세상을 밝히는 날, 부처님의 미소가 우주법계에 봄꽃처럼 만개할 것입니다.

# 봉 축 부처님오신날

<b>관음사</b> 주교   정인화 051-896-1578	<b>단향사</b> 주교   지홍 055-644-5375	<b>덕화사</b> 주교   법상인 051-332-8903	<b>밀행사</b> 주교   행원심 055-354-3387
<b>법성사</b> 주교   법선 051-468-7164	<b>삼밀사</b> 주교   묘홍 051-416-9835	<b>성화사</b> 주교   금강륜 051-254-5134	<b>실보사</b> 주교   서령 052-244-7760
<b>일상사</b> 주교   수행월 055-352-8132	<b>자석사</b> 주교   도우 051-752-1892	<b>정각사</b> 주교   법일 051-552-7901	<b>화음사</b> 주교   묘심해 055-755-4697
<b>동해사</b> 주교   법선 051-556-0281-2			

**부산·경남 교구 일동**

#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 국회 정각회 창립 40주년 기념법회 봉행, 봉축탑 점등식도



대한민국 국회 정각회(회장: 주호영)가 지난 5월 10일 창립 40주년을 맞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등 각 종단 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여야 불자의원과 개신교와 가톨릭 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정각회 40돌을 축하했다. 주호영 회장은 “우리는 불교와 종교계를 외호하는 호법신장으로서의 역할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통합과 상생의 정치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정각회 회원들은 김두관 의원이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정각회 회원 불자들과 사부대중은 국가이익과 국민행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정진하는 불자가 될 것”을 서원했다. 21대 정각회는 현재 49명의 불자의원을 비롯해 직원불자회 등 총 119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국회의사당 잔디광장에 마련된 봉축탑 점등으로 마무리됐다.

# 스승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 지난달 11일, 서울경인교구 보은행사



5월 감사의 달을 맞아 전국 사원에서 스승의 날 보은 행사가 열린 가운데, 서울경인교구지회(지회장: 박정희)가 지난 11일 경기도 하남의 모처에서 스승님들의 노고와 은혜에 감사드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에는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한 현직 스승 및 기로스승과 교도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도들은 스승에게 감사의 꽃다발을 전달하고 다함께 ‘스승의 은혜’를 함창하며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음식 공양을 올렸다.

행사에 앞서 우인 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 종단은 애종심과 스승에 대한 존경심으로 신행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우리 교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 자리를 빌려 함께 참석한 교도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정희 지회장은 인사말에서 “교도들의 말에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귀기울여주시며, 좋은 말씀으로 바른 길로 안내해주시는 스승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인사했다.

행사를 마친 후 이날 참석한 스승들과 교도들은 다함께 양수리 두물머리로 관불에 나서며 신심을 증장하고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 정각사,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오. 어머니의 희생은 가이없어라.’** 어머니날을 맞아 부산 정각사 합창단이 서원당에서 노래 ‘어머니의 마음’ 음성공양으로 동참 사부대중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했다. 부산 정각사(주교: 법일 정사)는 어머니날을 하루 앞둔 5월 7일 자성일 법회에서 어머니 날 깜짝 이벤트를 열었다. 법일 정사를 비롯한 정각사 스승들은 이날 참석한 교도들에게 빨간 카네이션 브로치를 직접 달아드리고, 만다라 합창단(단장: 안미옥)의 연주로 다함께 어머니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제7회 청소년 한마음 캠프, ‘참된 나를 찾는 여행’

## 오는 7월 25일부터 2박 3일 간 용인 에버랜드에서 개최

불교총지종이 주관하는 청소년 바른 인성 형성 프로그램인 제7회 한마음 캠프-참된 나를 찾는 여행이 4년 만에 열린다.

학생들의 여름방학을 이용해 열리는 이번 캠프는 오는 7월 25일(화)부터 27일(목)까지 2박 3일간 용인 에버랜드에서 개최된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이며, 각 사원의 스승 및 교도 자녀 그리고 사원에서 추천하는 해당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마음 캠프는 지난 2013년 처음 개최된 이래 해마다 여름과 겨울을 번갈아 실시하며, 입제식을 시작으로

스포츠 활동을 통한 신심단련의 시간을 가져왔으며, 놀이와 야외 단체 활동으로 나눔과 배려를 통한 협동심을 기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왔다.

총무부장 록경 정사는 “캠프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커나가는 데 미력이나마 돕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전국의 각 사원으로 발송되는 공문과 불교총지종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문의=각 사원 주교 또는 본산 통리원 02)552-1080~3

# 봉 축

# 부처님오신날

<p><b>반 보 사</b></p> <p>주 교   유가해</p> <p>042-255-7919</p>	<p><b>범 황 사</b></p> <p>주 교   인선</p> <p>062-676-0744</p>
<p><b>증 원 사</b></p> <p>주 교   정정심</p> <p>043-833-0399</p>	<p><b>혜 정 사</b></p> <p>주 교   진일심</p> <p>043-256-3813</p>
<p><b>흥 국 사</b></p> <p>주 교   인선</p> <p>063-224-4358</p>	

충청·전라 교구 일동





1

# 모두가 주인공 되어 부처님 법 전하게 하소서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며 국가무형문화재인 연등회 서울행사가 20일 오후 서울 동국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어울림마당 연희누리로 막을 올렸다. 불교총지종 서울경인교구 사부대중을 비롯한 5만여 명의 동참자들은 4년 만에 예년의 활기를 되찾았다. 이어 관불봉안을 시작으로 연희율동단 발표와 단체 행렬등 경연대회 등 사전 행사에 이어 연등법회를 봉행했다.

발원문에서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탐욕과 아집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과 세상을 부처님의 진리와 가르침으로 환하게 밝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부처님께서 걸어간 지혜의 그 길을 정진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서원했다.

본 행사를 마친 참가 대중은 동국대를 출발해 동대문까지 이동한 후 오후 7시부터 종로 일대를 거쳐 조계사에 이르는 구간을 봉축장엄등과 연등으로 수놓으며 불자는 물론 시민들과 외국인까지 함께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했다.

부산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며 5만여 화려한 연등 물결로 부산 시내를 장엄했다.

불교총지종 부산경남교구는 스승과 교도, 동해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 등 35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주황색 바탕에 보라색 깃을 두른 전통 교도 범의를 함께 수의하며 신심을 하나로 모았다. 금강저를 손에 든 형상과 탐에 기도하는 동자승, 쌍사자 석등을 장엄등으로 릴레이 연등행렬에 동참하며, 거리 곳곳에서 시민과 불자, 외국인 관광객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한편 불교총지종은 육합상과 진언 중의 으뜸인 ‘옴마니반메훔’과 ‘옴’자를 새긴 감로병을 형상화하여 행렬등으로 제작해 단체 행렬등 경연대회에서 ‘연등지계상’을 수상했다. 박재원, 김상미 기자



2



3



4



5



6

1. 감로등 행렬 불빛으로 물드는 흥인지문  
2. 스승을 따라 나선 300여 총지교도  
3. 환희심 가득찬 금강합장 스승과 교도들

4. 활짝 웃는 종단 산하 어린이집 선생님들  
5. 관성사 박태준 교도와 외국인 친구들  
6. 행렬 속에서 잠시 '스마일' 밀인사 교도들



7. 통리원장 우인 정사가 연등회 발원문을 봉독하고 있다.  
 8. 행렬하는 교도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통리원장 우인 정사  
 9. 부산 연등회를 밝히는 부산경남교구 스승들  
 10. 봉축연합법회 참석중인 부산경남교구 교도들  
 11. 정각사 장엄등을 선두로 스승과 교도들의 힘찬 행진  
 12. 불교총지종의 미래를 밝히는 종립 동해중 학생들  
 13. 도량을 연등 물결로 장엄한 포항 수인사 전경  
 14. 사원을 오색 빛으로 물들인 부산 정각사 전경



# 삶을 물거품처럼 아지랑이처럼 볼 수 있어야 한다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20화>

1907.01.29 경남 밀양 출생  
1972.12.24 불교총지종 창종  
종령 및 서울선교부 주교 재임  
1980.09.08 입적(세순 74세)

대성사는 한걸음에 달려가 야윈 아들을 집으로 데려왔는데, 포로수용소에서 굶주리고 고생한 탓에 처음에는 그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아들이야말로 낯설고, 흰칠하던 모습은 어디가고 그저 지친 포로의 형상을 보일 뿐이었다.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서도 이것이 실제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질 않았다. 부부가 잠든 아들의 곁을 지키며 여윈 얼굴과 뼈마디를 쓰다듬으며 밤을 지새웠다. 이런 날이 오기를 바란 것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꿈결 같아 '삶을 물거품처럼 아지랑이처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이 실감이 되었다.

순순표는 한동안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기만을 반복했다. 부모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속을 헤아릴 뿐이었다. 다만 이 비극이 일어나 온 국토에, 자식 가진 모든 부모들에게 다친 일임을 마음에 새겼다. 대성사는 이 일을 계기로 더 큰 발심을 하게 된다.

아들의 실종이라는 가족사에 매달려 있었지만, 그 시간 동안 대성사와 한국 불교의 운명을 가른 사건이 있었다.

세간에서는 이를 한국 밀교의 일대사라 평한다. 마치 불법이 지해와 자비로써 세상을 밝히고 고난을 건네게 하듯이 서로 다른 두 큰 인물이 만나면서 현대 한국 밀교는 새로 태어난다.

대성사가 자식의 생사를 알기 위해 백방으로 다니며 지극한 기도로 삼매를 이룬 모습은 이미 밀양과 인근에 널리 알려졌다. 몸과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오직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일체 헛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 몸과

마음이 일념에 든 상태를 보인 것은 화제가 됐을 뿐더러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차츰 처음 기도를 시작한 목적을 초월하여 진리에 대한 열망과 정진으로 이어졌으니, 이제까지 책으로 알고 절에 가서 경험했던 수행을 넘어서 새로운 신행에 대한 체현으로 이어지게 됐다.

대성사는 진리를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과 간절함으로 실제 닦아 경지에 도달하는 단계에 대해 이런 가르침을 남겼다.

“진리를 사상적으로 사유하여 이해하고 배워 닦는 데만 그쳐선 안 된다. 그 진리를 오로지 자기 생명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전인적인 체현에 도달해야 한다.”

결국 관세음보살을 간절히 생각하고 부르는 바가 관세음보살과 한 몸 되는 경지로 이끌며, 보살의 서원을 다짐하는 것으로 우주법계의 진리가 자신의 생명처럼 실천된다. 일념의 기도를 통해 나와 진리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고요히 무엇인가를 염하는 모습에서 한 치 흐트러짐이 없어 그 안색과 안광이 빛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난리 통에 어지러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불공잘해라> 삽화 중에서

작은 소문은  
울림이 되고  
더 큰 힘을 세상에  
전하는 법이다.  
전쟁을 겪으며  
마음 둘 곳이 없던  
이들에게  
대성사의 모습은  
하나의  
모범이 되었다.

운 민심 사이로 도인이 났다는 소문은 소리 없이 퍼져갔다. 이리저리 대성사를 만나길 바라는 이들도 나오기 시작했고, 집으로 학교로 찾아오는 이들이 늘어갔다. 대성사는 그들을 전쟁의 와중에 잃어버린 자식 같이 보았다. 자신을 내세워 높이거나 사사로이 따를 것을 바라는 대신 자신이 얻은바 진실에 다가서고 마음의 고통을 넘어 고요함에 이르는 방법을 일러주었으니, 오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한시라도 소리 내어 염하라고 당부하였다. 다만 말로써 하는 것이라면 그 감응이 없었을 터이나 실제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것은 흔들림 없는 불보살의 현신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자연 몸과 마음을 조복하여 그를 따르는 이들이 생겨났다.

평판은 따로 말하는 이가 없어도 멀리 퍼진다. 작은 소문은 울림이 되고 더 큰 힘을 세상에 전하는 법이다. 전쟁을 겪으며 마음 둘 곳이 없던 이들에게 대성사의 모습은 하나의 모범이 되었다.

그러던 차에 대성사 집으로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양복을 말쑥이 차려입은 풍채 좋은 신사가 자가용 지프에서 내렸다. 당시 지프차는 귀하기도 했지만 아무나 탈 수 없는

특별함이 있었다. 기별 없이 찾아온 지프차를 보고 궁금중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대성사를 찾아온 이가 누구인지 모두 궁금했다.

회당(梅堂) 손규상(孫球祥). 불교를 배우다가 육신의 병고를 이기려 100일 정진 후 깨달음을 얻어 1947년부터 대구 인근 달성군 성서면 농림촌을 시작으로 경주와 포항 등 경상북도 일대에서 새로운 불교를 세우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다. 그의 명성은 이미 세상에 잘 알려져 있었다.

교회의 근거지였던 포교당을 참회원(懺悔園)이라 부르며, 자신이 체득한 밀법(密法)을 세상에 전하고 있었다. 이전에 없던 가르침을 펼치자 세상의 관심을 끌었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비록 '자증자득' 하였다고 하나 법을 펼치는 일은 쉬운 일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갖추어야 할 교법과 교단의 형태를 바로 세울 일도 필요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종단의 기틀을 만들고 이 땅에 밀교를 전할 사람을 찾게 됐다. 그러던 중 대성사의 소문을 들었고 이리저리 알아본 끝에 밀양으로 온 것이다.

대성사는 차에서 내린 회당 대종사를 한 눈에 알아보았다.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심전심으로 안 것이다. 두 거인은 자신을 소개한 후 한동안 말없이 마주 앉았다. 말 한마디가 무거웠고 눈짓 하나가 진실하게 방안을 울렸다.

손규상 대종사는 월성 손 씨로 대성사와 비록 본관은 달랐지만 성씨는 같아 먼 친척을 본 것과 같이 대했다. 금강관이 내은 다과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대성사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을 물렸다.

짧은 침묵이 이어진 후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회당 대종사가 입을 열었다.

“나와 함께 뜻을 세울 이를 찾고 있습니다. 전란으로 세상의 고통이 깊어졌고 사람들은 나와 남으로 갈려 서로에게 미움의 총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나서서 세상을 구해야 할 것이고, 여기 내가 믿고 있는 길이 있습니다.”

대성사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다.

**봉 축**

## 부처님 오신날

**서울·경인교구 신정회**

지회장 | 박정희  
총 무 | 김옥인, 백귀임

**부산·경남교구 신정회**

지회장 | 류길자  
총 무 | 신혜영, 조향선

**대구·경북교구 신정회**

지회장 | 윤복자  
총 무 | 김옥희

**충청·전라교구 신정회**

지회장 | 민순분  
총 무 | 배정임

**마니 합창단**

단 장 | 최 해 선

**만다라 합창단**

단 장 | 안 미 옥

**부림 합창단**

단 장 | 조 정 애

부처님오신날 특별기고

# 현교와 밀교를 잇는 <불지경론>

### 법계체성지, 인류와 생명이 공유하는 청정한 본성의 가르침 “미륵 세우지 않아도 오늘날만큼 모든 중생이 한 몸이자 부처”

불기 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은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선언을 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 전 인류가 합심해 질병을 극복했다. 인류의 잠재의식 심연에는 인류애와 합심과 협동, 공영의 코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새겨졌으리라 생각한다. 인간을 비롯해 모든 생명의 생존, 자유, 고유성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의도도 인류애와 우주보편의 원리와 가치 앞에 점차 굴복하는 날이 올 것이다.

불교의 이론 가운데 인류 공동의 잠재의식을 이해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밀교의 '법계체성지'다. 법계체성지에 대해 여러 이론들이 많다. 간단하게 말하면 현교의 '사지설'은 내부 의식인 반면 밀교의 법계체성지는 무구정정식으로 일체중생의 보편적 불성이다. 법계체성지는 사지의 소의가 된다. 유가유식의 유식무경, 즉 '오로지 식만 있고 외경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유가유식의 명제는 개아의 의식적 환경을 설명하는 것이지만 모든 유정이 의지하는 우주 보편적 원리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법계체성지인 것이다.

유가유식의 논서로 법계체성지의 존재를 추정한 논서는 바로 <불지경론>이다. <불지경론>은 진광 논사의 저술로 현장이 당시대 649년에 한역하였다. 진광에 대해 알려진 것은 호법의 제자라는 것뿐이다. 『불지경』에는 대각지(大覺地)에 청정법계가 있다고 하였다. 진광은 논에서, "(청정법계는) 모든 성스러운 법이 생장하는 의인(依因:의거하는 요인)이다. ... 모든 법과 모든 유정에 두루하며 평등하게 공유하고, 모든 법과 더불어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청정법계는 바로 모든 여래의 승의(勝義)이다. 법계가 모든 유정들의 상속 속에서 두루 존재하고 저 모든 유정들은 스스로 선한 종자를 상속케 하는 힘이 있다. ... 이 작용을 제외하면 중

상연력은 다시 여래법신이 모든 중생들을 이익되고 안락하게 하는 일의 작용을 짓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불지경론>이 중요한 이유는 불보살 자비행의 근간이며 인류공동의 정신적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유식이나 선의 단견에 빠진 이들은 말하길, "모든 것이 공이고 유심인데 불보살의 자비가 무슨 소용 있는가?"라고 묻는 이들이 많다. 유정과 중생에 대한 사랑, 인류보편애가 설 자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불지경론>에서 청정법계를 설하고 이후 밀교의 법계체성지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태장계만다라와 금강계만다라에는 불보살이 갖춘 자비와 사회참여적 속성이 불성의 요소로서 자리잡고 있다. 태장계만다라의 허공장원과 소실지원은 자비와 구원을 확산하고 성취하며, 금강계만다라의 이취회와 향삼세삼매야회는 사바세계 육계를 수용하고 이를 성취해 나아간다.

팍팍한 세상을 살다보면 사람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다. 어떤 동료가 대승보다 소승이 살기 편하다는 말을 듣고 웃었다. 차라리 세상과 담을 쌓고 간섭 안하며 내가 할 일만 찾아서 하거나, 좀 더 나아가면 배우자와 자식, 가족 일만 챙기면 그만이라 말한다. 그러나 불교 하기가 그리 만만한 것은 아니다. 석존의 가르침에서 이미 인류보편애를 실천 대목이 무수히 많으며, 현실을 극복하는 긍정의 법문도 불 수 있다.

『증일아함경』은 부파의 대승적 성향이 많이 반영된 경전이다. 이 가운데 <역품1>에는, "여섯 가지 떼땀한 힘이 있다. 어떤 것이 여섯 가지인가. 어린애는 울음으로 힘을 삼아 할 말이 있으면 먼저 운다. 여자는 성

냄으로 힘을 낸 뒤에 말한다. 사문과 바라문은 참음으로 힘을 삼아 낮은 뒤에 말한다. 국왕은 교만으로 힘을 삼아 권력으로 말한다. 아라한은 정진으로 힘을 삼아 말한다. 모든 세존 부처님은 큰 자비를 성취하고 그 큰 자비로 힘을 삼아 중생을 두루 이익하게 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이른바 여섯 가지 떼땀한 힘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은 항상 큰 자비를 수행하기를 생각하라."고 하였다. 경전에는 긍정의 분노와 성냄, 인욕과 교만을 볼 수 있는데, 밀교와 친숙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다.

5월 27일 오늘은 부처님오신날이다. 불교는 한 인간에 의해 완성된 것이 아니다. 친광과 같이 진리와 자유를 추구하고 탐구했던 무수한 무명의 논사와 수행자들에 의해 그 체계가 세워진 것이다. 밀교의 법계체성지는 모든 인류와 생명이 공유하는 청정한 본성의 가르침이다. 인류는 그 가치를 공유하고, 무명의 대중들은 그 가치를 흠모하고 보존하기에 그것이 신이든 유물론이든 언젠가 진리를 성취할 부처님이다. 경권의 다나무 섬유와 그 옆에서 씨앗을 쏘던 쥐들도 모두 부처님이다. 미륵을 세우지 않더라도 오늘날만큼 모든 중생류가 한 몸이자 부처님이다. 정성준 교수

11면 가로세로 총지문답 정답

광	명	진	언			일	망	타	진
등				파	수	꾼			검
수	타	니	파	타			동	자	승
목				고	슴	도	치		부
원		고	라	니			미		
		진		아	소	카		국	
자	신	감			비			기	호
초		래		양	자	택	일		국
지				도		배			보
종	합	소	득	세		원		교	훈

## 절영지회(絶纒之會)



'절영지회(絶纒之會)'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절영지회(絶纒之會)'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갓끈을 자른 연회'라는 뜻이지만 이 고사성어에 담긴 가르침은 '남의 잘못을 관대하게 용서해주면 훗날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춘추시대 중국 초나라 초장왕은 고된 전투를 겪고 반란을 평정한 후에 공을 세운 신하들을 치하하기 위해서 연회(宴會)를 베풀었다. 신하들을 무척이나 아끼던 초장왕은 이 연회에서 특별히 자신의 총희(寵姬)인 허희를 불러내어 군신들에게 술을 따르게 하였다.

이때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어와 연회장의 촛불이 모두 꺼지고, 장내가 질척처럼 어두워졌다. 그때 그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의 앙칼진 비명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어떤 무장이 초장왕의 총희(寵姬)인 허희의 아름다움을 탐(貪)내다가 술기운을 빌어서 다가가 허희를 더듬었던 것이다. 이때 허희는 자신의 몸을 더듬은 한 무장의 갓끈을 손에 잡아당겨 쥐고서는, 급하게 왕에게 말하였다.

"방금 술을 따르는데, 어떤 사람이 촛불이 꺼지자 법도(法道)를 어기는 짓을 하였습니. 지금 제가 그 사람의 갓끈을 잡아당겨 두었으니, 대왕께서는 얼른 사람을 시켜 촛불을 켜라 명령하시고 어느 간당이 가 큰 자의 짓인지 좀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왕께서는 어서 불을 켜서 그 무엄한 자를 처벌해달라는 것이었다.

초장왕은 자신의 후궁을 희롱한 무례한 신하가 괘씸하고, 자신의 위엄이 희롱당한 것 같은 노여운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그 순간 왕은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이 자리는 내가 아끼는 이들의 공(功)을 치하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이다. 이런 일로 하여금 처벌은 온당치 않으니 이 자리의 모든 신하는 내 명을 따르라! 지금 각자 자신이 쓰고 있는 갓의 갓끈을 모두 잡아당겨서 없애버리도록 하라! 지금 이 자리에서의 이 일은 이 자유로운 자리에 후궁

들을 듣게 한 나의 경솔함에서 빚어진 일이니 불문토록 하겠다."

몇 해 뒤에 초장왕의 초나라는 진나라와 나라의 존폐가 달린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그 전쟁에서 초장왕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왕의 앞으로 나서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초나라의 수호신(守護神)이 되어 온몸이 붉은 피로 물들며 흡사 지옥의 야차(夜叉)처럼 용맹하게 싸워서 왕을 구하고 초나라를 승리로 이끈 장수가 있었다. 전쟁이 끝난 후, 초장왕은 그 장수를 불렀고 용상에서 내려와 그 손을 감싸 쥐고 공로를 치하하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용맹하게 싸운 연유(緣由)를 물었다.

장수는 큰절을 올리면서 이르기까지 "몇 해 전에 있었던 연회 자리에서 술에 취해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 저입니다. 그때 폐하께서는 소신을 살려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신은 새롭게 얻은 제 목숨은 폐하의 것으로 생각하며 살았고, 오늘 이 전쟁에서 제 목숨을 폐하를 위해서 바칠 각오로 싸웠습니다."라며 용서를 구했다.

우리는 이 고사를 통해서 얻는 가르침이 초장왕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 일이 자신의 경솔함에서 빚어진 일임을 인정한 것은 가히 대인(大人)다운 사고의 발상임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균형이 잡혀 있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일어난 일을 사실 그대로의 상황으로 인식하고 더는 자의적인 확대해석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깊은 배려심의 발로(撥路)를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다.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구간을 맞아서 우리는 누굴 닮아야 하는 것도, 타인의 잘못을 논하는 것도, 남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도, 또는 자신의 단점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마음도 가지지 말고 오직 나 자신의 단점을 고치기에 힘쓰자는 권고(勸告)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전하고 싶다.

시인, 전 동해중학교 교장 탁상달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 후원에 감사합니다

4월 21일 ~ 5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상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관성사	우인	4/24	10,000	만보사	이종구	5/11	7,000	석관실버복지센터	정윤영	5/3	10,000	정각사	김정남	5/2	20,000
	김병석	5/14	10,000		김정희	5/19	10,000		정영	5/6	10,000				
기로소승	공덕성	4/24	20,000	밀인사	김광혁	4/24	10,000	시법사	해광	5/2	10,000	제석사	안한수	5/7	10,000
	상지화	4/24	10,000		김재영	4/24	10,000		이순영	5/2	20,000		지인사	이진승	5/1
	수증원	4/24	10,000		정정희	5/2	5,000	실보사	박성호	5/18	10,000	총지사		유지호	5/7
	밀공정	4/24	10,000		덕광	5/10	20,000		이순옥	5/18	10,000		이인사	유선호	5/7
	선도원	4/24	10,000	법천사	반아심	5/2	10,000	실지사	황성녀	5/2	10,000	통리원		록경	4/24
	법지원	4/24	10,000		인선	4/24	10,000		유승우	5/8	10,000		포레스터7어린이집	김정환	4/30
	일성혜	4/24	10,000	법황사	정계월	4/24	10,000	아동회관어린이집	이도현	5/8	10,000	총지사		고)마경덕	5/8
	사홍화	4/24	10,000		박미경	4/25	10,000		이서현	5/8	10,000		통리원	무명씨	5/9
	안주화	4/24	10,000	벽룡사	승원	4/24	10,000	양지어린이집	이루나	5/8	10,000	통리원		무명씨	5/9
	진일심	4/24	10,000		묘원화	4/24	10,000		진금선	4/28	80,000		통리원	백귀임	5/10
시각화	4/24	10,000	벗고을어린이집	이민선	5/1	80,000	운천사	반야화	5/5	30,000	통리원	최영아		5/10	10,000
최상관	4/24	10,000		박필남	4/21	10,000		일원어린이집	하재희	4/25		80,000	통리원	신현태	5/13
연등원	4/24	10,000	하명순	4/25	10,000	일원어린이집	연명구		4/25	10,000	통리원	김명석		5/4	10,000
자선화	4/24	10,000	진여	4/25	10,000		자석사	구미자	5/2	10,000		통리원	최유정	4/25	80,000
승효제	4/24	10,000	강숙자	4/25	10,000	자석사		김경희	5/13	10,000	통리원		조성기	5/18	100,000
해정	4/27	10,000	강숙자	5/8	10,000		자석사	김명희	5/13	10,000		통리원	원당	4/21	10,000
단음사	하현정	5/15	10,000	심명자	5/10	10,000		자석사	김명희	5/13	10,000		통리원	묘심해	4/21
	장정숙	5/15	10,000	유은혁	5/15	10,000	자석사		김명희	5/13	10,000	통리원		무명씨	5/2
동해사	신말심	5/15	20,000	박필남	5/16	10,000		자석사	김명희	5/13	10,000		통리원	박옥자	5/9
	법선	4/24	10,000	김용기	4/25	20,000	자석사		김명희	5/13	10,000	통리원		무명씨	5/10
만보사	송인근	5/18	10,000	박현정	4/25	20,000		자석사	김명희	5/13	10,000		통리원	곽방은	5/10
	홍도열	5/8	10,000	나석원	4/26	50,000	자석사		김명희	5/13	10,000	통리원			

생명살림  
경건이야기 17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사무처장

# 생명의 무게는 같다

부처님의 전생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살바다라 왕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무서운 매에게 쫓기고 있어요. 저를 좀 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왕은 비둘기가 안쓰러워서 품 안에 숨겨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둘기를 쫓던 매가 나타났습니다. 매는 비둘기는 자신의 먹이이니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왕은 살생을 할 수 없다며 매에게 비둘기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비둘기를 내어주지 않으면 비둘기는 살지만 나는 죽어요. 그러니 어서 비둘기를 내놓으십시오.”

비둘기를 살리자니 매가 죽고, 매를 살리자니 비둘기가 죽는 골이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허벅지 살을 떼어 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매는 비둘기와 똑같은 무게의 살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왕이 저울에 무게를 재어보니 비둘기가 더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른 쪽 허벅지 살을 베어 달아서 비둘기의 무게와 같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비둘기의 무게가 더 무거웠습니다. 왕은 자신의 몸을 자꾸만 베어서 보았으나 계속 비둘기가 더 무거웠습니다. 살을 베어낸 자리가 아프기가 한량없었으나 왕은 비둘기를 살리기만 원하였으므로 신하에게 명하여 나를 죽여 골수를 달아서 비둘기의 무게와 같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때에 매와 비둘기는 본래 제석천의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의 몸도 다시 온

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왕의 보시가 제석천의 지위를 얻고자 함이 아니라 부처가 되어 중생의 고통과 액난을 구제하여 열반을 얻게 하고자 함임을 알고 곧 상처를 낫게 한 것입니다. 『육도집경』 제1권 제2장

이 이야기는 불교에서 생명의 무게가 같다는 것을 상징하는 이야기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가축들이 공장식 축사 좁은 틀에 갇혀 오직 인간을 위한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수명보다 일찍 목숨을 잃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기를 먹을 때 이들이 겪는 이러한 고통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동물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애써 외면하려고 해도 그 사실은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축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실험실에서 온갖 고통을 받다가 죽어가는 토끼나 쥐 같은 동물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물 실험은 꼭 필요하지도 않고 또 매우 잔인합니다. 그래서 동물실험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어떻습니까? 좁은 수족관에서 구경거리가 되다가 죽어가고, 생존 조건과 전혀 맞지 않는 동물원에서 일찍 생을 마감합니다. 어린이를 둔 부모들은 교육을 위해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자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통을 이해한다면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얼마나 비윤리적인 곳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축산동물입니다. 우리 국민 1명당 2020년 기

준으로 연간 281개의 계란을 먹습니다. 달걀은 사육 환경에 따라 고유번호 끝자리에 1번부터 4번 까지가 있습니다. 1번은 방사 사육, 2번은 케이지(우리)에 가두지 않고 실내 사육한 닭이 낳은 달걀을 뜻합니다. 1번과 2번 달걀은 건강한 환경에서 사는 닭이 낳은 ‘동물 복지 달걀’로 볼 수 있습니다. 3번은 0.075㎡ 케이지에서 낳은 달걀을 뜻하며, 4번은 ‘배터리 케이지’로 불리는 공장식 사육 환경으로 한 마리당 0.05㎡케이지를 말합니다. 참고로 A4용지 크기는 0.6㎡입니다. 그러니까 A4용지 한 장 보다도 좁은 곳에서 사육된다는 말입니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달걀의 96% 정도가 4번 달걀입니다. 이들 계란을 낳는 산란계들은 좁은 케이지에 가둔 채 모미와 물을 먹으며 인공조명으로 불을 밝혀 알을 낳게 합니다. 1년이 지나면 닭들은 지쳐서 낳는 달걀 수가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곧 도살됩니다.

부처님의 전생담에서 나온 비둘기와 왕의 무게가 똑같다는 이야기는 모든 생명의 목숨이 갖는 가치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매우 중요한 경전입니다. 부처님을 따르는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제1계(戒)인 불살생(不殺生)을 지키기 위해 다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죽이지 않으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구제하고 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즐거움과 괴로움의 감정이 있는 유정중생(有情衆生)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동물복지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부처님오신날 추천하는

# 정찬주 작가의 소설 <아소까대왕>

미빛아카데미 이학중 대표

<아소까대왕>이라는 소설이 출간되었다. <산은 산 물은 물>이라는 소설로 구도소설의 정점을 찍었던, 역량이 검증된 소설가 정찬주 작가의 신작소설이다. 고히를 훌쩍 넘긴 정찬주 작가는 이 소설이 어쩌면 이번 생의 마지막 대하소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혼신을 다한 소설이라는 뜻일 것이다.

아소까대왕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아소까대왕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다. 고전의 명칭은 알아도 정작 고전을 읽어본 이는 드문 것과 같은 이유일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알아도 정작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는 모르는 것과도 같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했을 때, 그 모습을 본 브라만들은 세속에 남아 있으면 전문성왕이 될 것이고, 세속에 떠나면 부처님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따라서 전문성왕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불자는 거의 없다. 그러나 전문성왕이란 어떤 역할을 하는 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인해 불교가 탄생했다면, 아소까대왕으로 인해 불교가 세계의 종교가 되었다. 나아가 아소까대왕이 불교를 널리 전파하지 않았다면, 불교는 인도의 한 종파로 남아있다가 힌두교에 흡합되어 소멸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아소까대왕이 부처님의 유적지를 알리는 석주를 세우지 않았다면, 팔만사천개의 탑을 세우지 않았다면 불교는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아소까대왕이 불교에 얼마

나 큰 영향을 끼쳤으며 큰 족적을 남긴 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또한 재가의 불자로서 가장 이상적인 인물을 꼽는다면 단연 아소까대왕일 것이다.

소설 <아소까대왕> 집필을 위해 정찬주 작가는 수십 번 인도를 답사했다. 작가의 이와 같은 극진한 구도원력이 없었다면 이 소설은 애초에 탄생할 수도 없었다. 아소까대왕을 21세기를 사는 불자들에게 유려한 문장으로 생생하게 부활시켜 친견할 수 있게 해준 정찬주 작가에게 어떤 감사와 찬사를 보내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소설은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설과는 격이 다른 소설이다. 시공을 넘어 아소까를 생생하게 살려낸 불가사의한 다큐멘터리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부처님의 진리로 제국을 통치했고, 불교를 세계화시켰으며, 불교를 온전하게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게 한 대왕이자 성자인 아소까를 친견할 수 있는, 그가 경영해보인 일생을 통해 참 진리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고귀한 기회를 만들어준 작가에게 한 없는 고마움을 전한다.

이 글은, 피를 나누지 않았으나, 형제의 인연을 맺은 아우로서 사적으로 드리는 인사가 아니다. 평생 자로 살아, 취재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촘촘한 취재를 했다는 것에 놀랄 뿐이다. 반드시 알아야 할 위대한 인물을 초인적 노력과 역량으로 살려낸 역사 중의 역사가 소설 <아소까대왕>이다.

## 불교서적 월간베스트(5/1~31)

제공 : 도서출판 운주사

순위	도서명	출판사	저자
1	너무 늦기 전에 들어가 할 카르마 강의	김영사	최준식
2	금강경 강의(통섭불교원/김성규)	통섭불교원출판부	김성규
3	깨달음에 이르는 알아차림 명상수행	명상상담연구원	아날요/이필원 외
4	종관학 특강 : 색즉시공의 논리	오타쿠	김성철
5	넓은 옷을 벗어라:법정 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불교신문사	법정 스님

#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부처님 오신날을  
보충합니다

이사장 : 우인정 사  
교장 : 송인근  
교감 : 김진화  
행정실장 : 법선정 사

## 총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시실로 19-39(명물동) Tel.051-555-4456

# 석관실버센터, '어버이은혜, 감사해孝(효)'

## 어르신 250여명 초청, 오케스트라, K-pop, 난타 등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우인 정사)이 운영하는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는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 250여명을 초청하여, '어버이은혜, 감사해孝(효)' 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장에 입장하는 어르신들에게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담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떡과 기념품을 증정했다. 석관고등학교 학생 동아리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풍물놀이, K-pop 가요공연과 하은어린이집 아동들의 합창 및 율동, 난타 퍼포먼스, 은하무용단, 가수 서희 공

연 등 다양한 축하공연을 선보이며 어르신들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성북구 이승로구청장을 비롯 기동민 국회의원, 이호건 구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를 위해 헌신하고 경료호친 문화 확산에 기여한 어르신에 대한 카네이션 및 꽃다발 전달식도 진행됐다. 나석원 센터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어르신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 양지동제1복지회관, 100개의 카네이션도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우인 정사) 산하 양지동제1복지회관 (원장: 정동숙)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를 주제로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어버이날 행사에서는 소속 어린이집 원아들이 깜찍한 율동과 노래가 담긴 축하공연을 선보였으며,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드렸다. 어린이들의 공연을 보고 카네이션 받은 참석 어르신들은

아이들의 재능과 더불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에 앞서 아이들과 복지관 종사자들은 카네이션 100개를 함께 만들어 관내 독거 어르신들에게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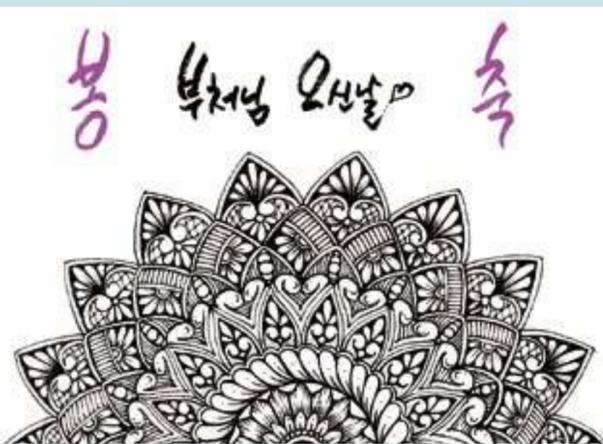
이날 행사에는 성남시 신상진 시장을 대신해 성남시 교육문화체육부 주광호 국장과 양지동 권미영 동장, 김종화 양지동맞춤형복지팀장이 참석하여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어르신 은혜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

# 한국밀교학회 복인도 불교 불적답사

한국밀교학회는 복인도의 불교왕국 라다크의 불교성지인 상카르 곱파, 스티톡 곱파, 헤미스 곱파, 티세 곱파 등을 답사합니다. 이와 함께 고대인도의 알차벽화와 설산을 배경으로한 레포츠와 하즈랏발모스크 순례와 히말라야 관광이 포함된 예정입니다. 뜻있는 사부대중이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 일시 | 2023년 8월 15일~ 8월 22일 6박8일 간
- 비용 | 260만원 • 마감 | 7월 15일(토)까지 선착순 22명 마감
- 신청 | 한국밀교학회(02-913-0751)  
불교총지종 홍보실(02-552-1080)

# 보현 전수미 총지스케치



# 가로세로 총/지/문/답

①㉠						②㉡			㉢
				④㉣					
③								⑤㉤	
				⑥					
			⑦㉦						
				⑧	㉧			⑨	
⑨㉨									⑩㉩
				⑩㉪		㉫			
⑫									⑬

# 가로 열쇠

- 부처님의 광명으로 모든 업보가 소멸되는 진언
- 한 번 그물을 쳐서 고기를 다 잡는다는 뜻
- 부처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란 뜻의 대표적인 초기 경전
-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 호밀밭의 000
- 일찍 머리를 깎고 출가한 나이 어린 승려
- 몸의 등과 옆이 가시로 덮여 있는 포유동물
- 노루와 비슷하게 생긴 울음소리가 특이한 사슴과 동물
- 인도 역사상 최고의 군주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인물
- 어떤 일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
- 돌 중에서 하나를 고르다는 뜻
- 부호나 그림, 문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
- 1년 동안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
-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경험적 사실

# 세로 열쇠

- 경기도 포천에 있는 국립수목원이자 산림생물종 연구기관
- 품삿을 받고 어떤 일을 맡아 하는 사람
- 진심을 다해 겨루는 승부
-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남쪽 지역, 미국의 친환경 패션 브랜드
- 체했을 때 먹으면 좋은 시원한 물김치
-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을 이르는 말
- 물건을 사거나 쓰는 사람
- 한 나라를 상징하는 깃발
-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체 과정을 이르는 말
- 토지, 건물 등의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 우편물이나 짐, 상품 등을 요구하는 장소까지 직접 배달해주는 사람
-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 힘쓰는 사람들의 공훈에 보답하는 것

#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종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공 불공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 호국인민의 정진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공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제주경'에 의한 진언 '출몰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b>대구경북교구</b>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견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대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b>부산경남교구</b>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흥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로 59-1 (초량동)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명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b>충청전교구</b>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항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호자동1가)	(063)224-4358
종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Peace of the Mind, World of the Buddha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비로자나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종령 법공 대종사

통리원장    우인 정사    종의회의장    법상인 전수    사감원장    법일 정사

본산	서울경인교구	부산경남교구	대구경북교구	충청전라교구
총무부장    록경	관성사 주교    우인	관음사 주교    정인화	건화사 주교    도관	만보사 주교    유가해
재무부장    승원	밀인사 주교    덕광	단향사 주교    지홍	개천사 주교    인덕심	법황사 주교    인선
교정부장    보현	법천사 주교    화령	덕화사 주교    법상인	국광사 주교    해안정	중원사 주교    정정심
종무원    일동	벽룡사 주교    승원	밀행사 주교    행원심	단음사 주교    남혜	혜정사 주교    진일심
	시법사 주교    해광	법성사 주교    법선	선립사 주교    수현	흥국사 주교    인선
중앙총의회	실지사 주교    서강	삼밀사 주교    묘홍	수계사 주교    자심관	
사감원	지인사 주교    법우	성화사 주교    금강륜	수인사 주교    법상	
원의원	총지사 주교    록경	실보사 주교    서령	승천사 주교    지선행	
불교총지종유지재단		운천사 주교    정원심	제석사 주교    원만원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일상사 주교    수행월		
		자석사 주교    도우		
법장원		정각사 주교    법일		
중앙교육원		화음사 주교    묘심해		
밀교연구소		동해사 주교    법선		
학교법인관음학사 동해중학교				